



바다로 열린 제주, 그 너머 빛나는 화폭의 울림

■ 한라일보 창간 31주년 갤러리ED 개관 3인 초대전



폭풍의 화가 변시지
화산도 섬에 비친
존재의 깊은 심연

새벽의 화가 강승희
어둠 뚫고 퍼지는
치유의 검은색

한라산 화가 채기선
마음 속 이상향
이어도를 꿈꾸며



변시지의 '거친 바다 젖은 하늘' (캔버스에 유채, 2000)

폭풍의 화가, 새벽의 화가, 한라산의 화가. 제주 땅이 품어온 특수성을 밀도 있는 조형언어로 빚어온 3명의 화가가 새봄 제주에서 만난다. 제주시 도심 한라일보(제주시 서사로 154) 사옥 1층 갤러리ED 개관 기념 전으로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이 펼쳐진다.



강승희의 '새벽-21922' (캔버스에 유채, 2019)



채기선의 '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 (캔버스에 유채, 2020)

갤러리ED는 한라일보사(대표이사 이용근)가 창간 31주년에 맞춰 조성한 공간이다. 갤러리 이름은 영문 '에브리 데이(Every Day)' 머리글자와 제주방언으로 '여기', '이곳'을 뜻하는 '이디'의 의미가 더해졌다. 매일매일 일상과 가까운 여기, 이곳에서 제주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도록 감성 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시장 활성화로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겠다는 바람이 담겼다. 개관전은 '제주, 제주 너머'란 제목을 달았다. 작고한 변시지 화백을 포함 초대전 작가 모두 제주 출신으로 이들의 작품이 제주가 걸어온 역사·문화의 궤적을 바탕으로 바다 너머 세계로 열려있는 제주섬의 지형처럼 예술적 공간대로 세계인들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정통 장르에 기반해 내면의 깊이를 끌어올리며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들로 초대전에는 10점씩 모두 합쳐 30점이

걸린다. 변시지(1926-2013) 작가는 '황룻빛 제주화'를 낳은 인물로 일찍이 캔버스에 제주의 남다른 가치를 구현했다. 그의 유화 작품엔 훗날 세계유산이 된 제주섬의 자연·문화자원이 다 들어있었다. 초대전에는 유족 소장품을 중심으로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나온다. 벗은 몸의 '해녀'(1989), 특유의 화산토색 화폭에 초록빛이 어른거리는 '폭풍의 바다 I'(1993), 사회상이 반영된 듯한 '좌도 빈집 우도 빈집'(1997) 등이다. 돌담, 초가, 조랑말 등이 자리한 화면을 통해 고독과 마주해야 하는 존재의 심연을 드러낸 '거친 바다 젖은 하늘'(2000)엔 고인의 작품 세계가 응축되어 있다. 추계예술대 판화와 교수로 있는 강승희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1991), 공간 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1988) 경력이 있다. 그동안 판화 작업으로 '새벽' 연작을 발표해왔다면 이번에는 유화를 선보인다. 강 작가가 2018-2019년에 그려낸 '새벽'은 미명 속의 고요한 정서가 배인 시간이다. 새벽은 고향의 한라산, 바다와 달이었다. 강 작가는 수묵화의 그것같은 질감으로 어둡고 깊은 잡에서 깨어나는 검은색을 표현하고 있다. 서서히 빛을 뿜어내는 새벽의 검은색은 어느 순간 아픔과 고독을 치유하는 색깔이 된다. 채기선 작가는 '상(象)-한라산'으로 200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을 받는 등 줄곧 한라산을 불들여왔다. 전업작가로 치열한 창작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채 작가의 '한라산'은 실경이면서도 실경이 아니다. 거기엔 제주 사람들이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다다르고 싶었던 우리 마음 속의 이상향 이어도가 있다.

이번 전시에는 푸르거나 붉은 기운이 감도는 '한라산' 작업을 내놓는다. 2020년 신작은 '부활'이란 부제가 붙은 말리의 '교향곡 2번'을 들으며 그린 작품으로 시·청각의 융합으로 탄생한 또 다른 한라산이다. 한미라 갤러리ED 관장은 "3인의 초대 작가 작품을 통해 지역을 중요시하고 지역성을 추구하면서도 지역에 매몰되지 않는 지역미술의 정체성과 방향성, 갤러리의 지향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초대전은 한라일보 창간기념일(4월 22일)을 앞두고 이달 18일 시작돼 7월 17일까지 계속된다. 코로나 19 여파를 감안해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 초청 인사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입장객들은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문의 064)750-253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mailto:진선희기자@sunny@ihalla.com)

시(詩)로 읽는 4·3 (55)

나는 모른다고 한다

한기팔

나는 모른다고 한다
모른다고 모른다고 한다
바람 앞에서
모른다고 하고
풀잎 소리에도 모른다고 한다

그 난리 통에
나는 열 살 박이 소년

산사람들이 내려와
반장집이 어디냐 구장(區長)집
이 어디냐 물으면
모른다고 하고
토벌대(討伐隊)가 와서
이 동네에는 산으로 산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면
모른다 모른다고 했다.

'나는 모른다고 한다'에 등장하는 자전적 화자는 '열 살 박이 소년'이다. 제주4·3의 난리 통에 무력한 소년은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다만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이다. 납득할 수 없는 4·3의 폭거는 소년을 점점 그 현실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다. 소년은 생존하기 위해 회피의 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부당한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끼지만, 이 상황을 개인이나 집단의 힘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없을 때 '한(恨)의 정서'가 나타난다. 이렇게 작품 속 어린 화자의 트라우마는 '한(恨)'의 성격을 띤다. 비록 개인에게서 발현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집단적 차원의 폭력이자 트라우마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희생양으로 등장하는 자전적 화자가 '열 살 박이 소년'이라는 데서, 그 비극은 독자들에게 더욱 무겁고 깊게 다가간다. 항거불능의 집단적 폭거는 도저히 종식시키거나 개선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이로 인해 어린 화자는 '모른다'라는 회피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국을 위해 불가리 아로 쳐들어와 무고한 민간인을 처참하게 학살한 조르바는 오그레에게 말한다. "조국이 어디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예요. 조국이 있는 한 인간은 짐승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조국의 이름으로 전쟁에 가담해 적국의 시민을 학살한 조르바의 깨달음은 뒤늦은 것이었으나 통렬하기 그지없다. 모든 인간은 조국보다 우선한다. 조국이 내세우며 민간인 학살을 강제하는 정부와 권력자는 죄악이다. 4·3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법부의 사과도, 경찰의 사과도, 군대의 사과도, 국가의 사과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에게 죽어간 사람은 그렇게나 많았는데도. 책임은 넓게, 사죄는 깊게. 그 후 용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화두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국가폭력에 희생된 모든 영령의 명복을 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공연장 상주단체 제공모 김정문화회관 상주 활동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0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제공모에 나선다. 1차 공모 사업에 선정된 5개 단체와 3개 공연장이 협약(체결) 기간 중에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실시되는 것이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제주 지역의 공공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서 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

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1차 공모 결과에 따라 올해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전통예술공연개발원, 서귀포 김정문화회관과 제주제임버오케스트라, 돌문화공원과 극단 가람·제주발레앙상블 등 3개 공연장에 4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공모에서는 사업 포기 사례가 발생한 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를 선발한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단체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이달 2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예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800-9135. 진선희기자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